

# 순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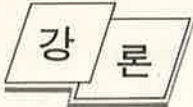
연중 제 23주일

제 1독서 : 에제 33, 7-9

제 2독서 : 로마 13, 8-10

복 음 : 마태 18, 15-20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마태 18, 20).



## 무조건 용서는 왜곡된 사랑



이수현 신부 / 연지동 천주교회

우리는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또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만신창이 된 현 시기에 교회 안팎으로 ‘사랑과 용서’를 더 크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올바른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직자(특히 고위급)들을 위시하여 사회 지도자나 유지들의 부도덕하고, 불의하며, 부정한 행위로 만연된 온갖 병폐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된 혼란 속에서도 약하게나마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인간 양심과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회 질서들이 거의 다 파괴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이러한 파괴는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확실히 심화되었습니다.

물과 시간은 한 번 흘러가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나간 역사라고 하여 그만 잊어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잊어버려질 수도 없는 것이며, 더구나 잊어버려져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루고 사는 ‘인간’이며, 역사와 함께

살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느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30여년 동안 우리의 어둡고 쓰라린 역사를 강요한 군사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그의 추종 세력들의 범죄행위는 날날이 들춰내어 일단은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현정권자인 김영삼 씨는 12.12 사건이나 5.18의 진상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역사적 과업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회한한 강변을 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김영삼 씨 말은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 이젠 그만 용서해주고 덮어두자!”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 중에는 ‘사랑’이라는 무기로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랑을 전적으로 왜곡한데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용서는 무조건 베풀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회’ 조건입니다. 사랑도 참회없는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참회없이 베푸는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빗대어 강요하는 용서는 더 큰 죄악을 낳도록 길을 터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되, 잘잘못은 일단 가리고,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에게만 용서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진정으로 참회하며 용서청하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 명



가 을



모보일(즈가리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새로운 곳을 찾아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직장의 동료라던가 눈인사만 하고 지내던 이웃과 우연히 어우러져도 좋다.

또 여행지가 처음 가보는 곳이 아니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모처럼 찾아본 고향이라면 개구장이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8월 한달 동안 여기저기 여러 곳을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회사에서 실시한 연수 바람에 두 주일 가량 후쿠오카에서 동경까지 일본 여러 도시를 돌아볼 수 있었고 휴가 기간 동안 제주도도 비롯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다녔다. 말로만 들었던 것을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오래 계속된 장마로 여러 날을 빗속에 갇혀 지내는 바람에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아쉬움만 남았다.

올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여름 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더니 벌써 아침 저녁 기온이 싸늘하게 느껴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다.

낮게 내려앉았던 하늘이 저만치 물러나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가 뚜렷한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이다. 이처럼 사계가 뚜렷하지 않은 서양에는 장마가 없다.

옛 영국만 해도 1년을 여름과 겨울 두 계절로만 나누다가 17세기 초부터 가을을 수확의 계절(HARVEST)과 낙엽지는 계절(FALL)로 구분하기 시작, 수확의 흥겨움 속에 낙엽의 애수를 생각해 했다.

프랑스에서는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랑트레'의 계절이라고 한다.

'랑트레'(Rnetree)란 '돌아간다'는 뜻으로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프랑스에서는 긴 방학을 끝낸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때를 가르킨다. 어른들도 '바캉스'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도 담겨 있다.

'바캉스'란 본래 현실로부터 벗어나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나 일상적인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천지가 황금색으로 뒤덮이고 과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등잔불 아래서 풀벌레 우는 소리, 맑은 샘물 돌 위로 흐르는 물소리.

가만히 숨을 멈추고 들어보면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다.

그런데 올해 이상저온 현상으로 대홍작을 기록했던 80년보다 일조량이 부족해 쌀생산량이 3백만섬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라고 한다.

땀을 거두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네 식생활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쌀 선호도가 높아 벼농사가 흉작을 이루면 인심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쌀 부족을 이유로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로 끝나기 바란다.

이달은 햅쌀로 술과 떡을 빚고 갖가지 오색 과일을 갖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는 추석이 들어 있다.

특히 우리 천주교인들에겐 이달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어 옥에 갇혀 온갖 수모를 당한 끝에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순교자 성월이다. 순교자들은 자연의 뜻을 털끝 하나까지 확신하고 아꼈다.

수확의 계절, 이번 가을 순교자 성월을 맞아 선인들의 순교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



주님이 계시기에

# 순교자 덕분에

정정순(마리아) / 상삼례 성당



“순교자의 피는 신앙의 씨앗”이라고 한 교부는 말했다.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있기까지 그리고 편안하게 믿기까지는 세계적으로 순교 선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작은 나라에도 무수한 선조 순교자들이 신앙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에 그리스도 신자들의 무리가 점점 커가고 신앙의 뿌리도 깊게 뻗어나갈 수 있었으리라. 그 순교자들의 믿음에, 그 순교자들의 고통에 만분의 일이라도 따르고파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고 교회의 온갖 봉사과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치명자산에 오르는 한 할머니가 있다.

정정순(마리아·72세) 할머니. 그의 고향은 경상도 함양, 9세 때 부모와 함께 전북 삼례로 이사오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신자 아닌 가정에서 혼자 10세 때 영세 받았고 결혼하여 1남1녀를 두었다.

그의 생활은 언제나 신앙활동으로 이어졌다. 젊었을 때부터 아픈 관절로 다리가 약간 불편하면서도 매일 미사, 레지오, 십자가의 길, 성체조배, 연도, 봉사활동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그가 치명자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이

다. 특히 유효한과 이루갈다 동정부부의 순교의 삶에 매료되어 이분들이 하루빨리 성인품에 오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구원의 길로 걸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특히 순교자들의 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치명자산의 미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봉헌금이 없었으나 조금이라도 교회에 협력하고 순교자들의 정신을 닦고 싶은 마음에서 그와 함께 몇몇의 신자들이 출선수범하여 시작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성지개발하는데 한몫을 차지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또한 미사 전후로 대너들과 함께 묘지의 잡초도 뽑고 주위도 정리하는 등 순교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주님과 순교자들을 위해 몽땅 소모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한다.

오늘도 절뚝거리는 다리로 치명자산에 오르는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로 향한 믿음과 순교자들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으로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는다.

신자들의 소리

# 순교자의 후손답게

윤석연(아오스딩) / 농송동 성당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결실의 계절 9월이 오면 우리는 순교자 성월을 지내게 됩니다. 자생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교회는 썩이 자라기도 전에 100여년간 피비린내나는 박해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으며, 이 고장에서도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처형됨으로 인해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거저 물려준 것이 아니라 피로써 물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치명까지 달게 받아들인 순교자들이야말로 복음선포의 선교사요,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튼튼히 심어 놓은 초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는 이분들의 공은에 힘입어 1937년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설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생활하신 곳, 간혀 계신 곳, 치명하신 곳, 묻혀 계신 묘소 등 이 고장에는 많은 순교성지가 있으며 아직도 개발중이거나 개발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숲정이는 일부가 매각되어 옛날과 같은 성지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치명자산은 난공사와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완공치 못하고 있으며, 진입로와 주

차장 시설은 언제 마무리될지 요원한 생각이 들어 참배객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손된 우리들은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훌륭한 성지들을 개발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안내를 하다 보면 간혹 시간에 쫓겨 허둥대는 무질서한 행동을 목격하면서 순교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는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겨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자극받기 위함입니다.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만능의 세속주의로 치닫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현대에 알맞는 순교정신을 개발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자녀가 되어 순교성지를 자주 방문하여 기도와 보속과 피정의 장으로 활용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성지에서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정성스럽게 가꾸고 순교자들의 고결하신 뜻에 동참하여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①

#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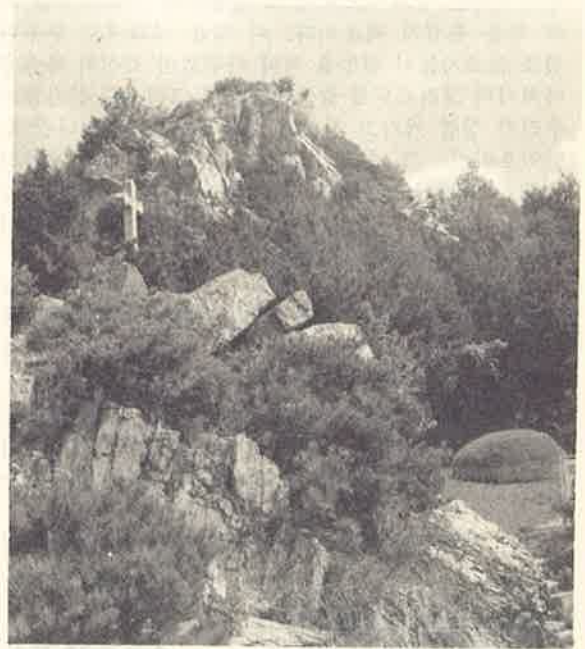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우리는 해마다 순교자 성월(9월)이 돌아오면 ‘순교자 찬가’를 부르며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을 본받고자 성지를 순례하고, 나름대로 희생의 생활을 한다. 사실 말이 순교지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순교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고, 가장 뛰어난 덕목이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극치에 도달한 영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또한 순교의 정신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거나와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의 특징인 고도의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 생명을 경시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싸늘한 무신앙을 가져다 주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지난해 평화신문에 게재되었던 조선왕조의 4대 박해인 신유, 기해, 병오, 병인박해에 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우리 모두 순교자들에게 특별한 공경과 사랑을 바치며, 선조 순교자들의 신앙과 오묘한 천주교 전파의 역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은 북경 교구장 구베아 주교의 제사 금지령에 따라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神主)를 불태웠다. 이것이 이른바 진산사건으로써 이들을 이웃과 친척이 관가에 무군무부(無君無父)의 불효자로 고발함으로써 조선 천주교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가 시작된다. 이후 이



치명자산 순교자 묘지

땅의 천주교 박해는 약 100년간이나 이어져 수만명에 달한 순교자를 탄생시켰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 2백살이 넘는 큰 나무가 된 한국천주교회는 끝없이 이어진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를 밀거름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신유박해(1801년)

#### •배경 및 원인

조선왕조의 당파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중 천주교에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펴온 정조 임금이 1800년 사망하고 뒤를 이어 순조가 등극한다. 이때 순조는

### 별 장 가 든

결혼·약혼·회갑·동창회  
각종 세미나  
시설 완비 무료 제공  
이인서(사베리오)  
정점자(루갈다)  
☎ (0654) 43-1737~8

혼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끼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 이철현 한의원

이철현(암브로시오)  
한일테니스장 앞  
☎ (0652) 254-7358

### 효자 쇼파 공장

고급 응접세트(업소용)  
제작 및 천갈이 전문  
조종복(비오)  
효자테니스장 정문 앞  
☎ (0652) 223-4346

# 씨앗



불과 11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대왕대비인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된다. 김씨는 섭정하기 전 오빠가 당파 싸움에서 밀려 귀양간데 대한 복수로 반대파 숙청을 계획한다.

그런데 반대파인 남인들 중에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많았으므로 사학(邪學-그릇된 학문이란 뜻)으로서 그 당시 천주교를 맞추어 일컫던 말) 제거라는 명분하에 박해를 시작하게 된다. 그 당시 천주교 금지 교서를 공포, 다섯집씩 서로 감시케 하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의거,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전개된다.

### • 대표적인 순교자

이승훈(베드로) · 정약종(아우구스티노) · 최필공(토마스) 등이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참수됐으며, 권철신(암브로시오) 등은 옥사했다. 이처럼 순교자가 늘자 주문모 신부는 자기로 인하여 많은

교우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여 자수하였다. 주 신부는 결국 군문효수되었다. 또 전주의 유허검(아우구스티노)을 비롯해 동정부부로 유명한 유허검의 아들 유중철(요한)과 며느리 이순이(루갈다)도 순교했다.

### • 특기할 만한 사건

16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한 황사영(알렉산델)은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후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주문모 신부와 함께 기거했다. 그러던 중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배론 교우촌의 동굴에 은신, 조선교회를 살리고자 북경의 주교에게 보내는 비밀 문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전체 1만3천3백11자로 되어 있는데 흰 명주천에 쓰여졌으므로 「황사영 백서(帛書)」라 불린다. 결국 이 문서는 관헌에 발각되어 황사영과 관련자 모두 순교하게 된다.

### • 결과

박해 기간 동안 약 1백 명이 순교하였고, 약 4백명이 유배되었으며,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산간벽지로 숨어들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다시 선교사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된다.

## 요심이 (1045)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 꿀 배

1. 판매기간 : 8.21(토) - 10.10(일)  
 2. 가격 : (8Kg 1상자당)  
 특 : 20,000원 대 : 17,000원  
 중 : 14,000원 소 : 8,000원  
 3. 구입 문의 : (0658)43-0881, 0880  
 43-4236

### (有) 경일건설

조림식 건축, 사무실 칸막이, 건축, 토목, 샌드위치판넬, 철구조물 공사

김 해 선(레미지오)

구 소방서 ←→ 흥국생명 중간  
 ☎ (0652)75-0161 · FAX 71-6302  
 호출기 012-681-0055

###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한국천주교회는

끝없이 이어진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를  
 밀거름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첨단 부엌기구 전시장

### 에넥스 북부대리점

대단위 급식장 설비, 컴퓨터 설계  
 린나이 가스 기구 판매

최 병 화(베드로)

삼례 실약탕 맞은편  
 ☎ (0652)291-0291~2

###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태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 ←→ 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뿌리를 찾아서

# 효자동 성당

— 파티마 성모의 사랑 안에서 —



언덕 위의 집.  
파티마 성모의 은유와 사랑이 기초 공동체인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듯 소담스레 자리한 효자동 성당.

전구교구의 모(母)본당인 전동 성당에서 1975년 8월 본당 설정 60주년을 맞아 파티마의 성모께 성전을 지어 봉헌키로 결의하고 현 대지(2,248㎡)를 매입하였다. 이듬해 3월 본격적인 성당 건립 추진위원회(총재: 김환철 신부, 회장: 이종두)를 구성하고 1977년 6월 성당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78년 4월 축성식을 함으로써 전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 파티마의 성모상도 함께 모셔져 왔다.

본당 공동체는 본당 설정 이후 1978년 10월 임시 수녀원을 준공, 1981년 4월에 수녀원 본 건물을 완공하였다. 본당 소임 수녀로는 1978년 12월 성가소비녀회에서 파견되기 시작, 본당사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0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는 파티마 유치원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5년 교육관 신축(지하 1층, 지상 2층)을 하여 회의실, 사제관 등을 갖추었다.

그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1988년 1월에 390세대를 당시 화산동 성당에 분리시키고, 1989년 1

월에 용머리 성당에 418세대를 분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본당의 주보 성인인 파티마의 성모 축일(5월13일)에는 본당의 날 행사와 축제가 다양하게 열린다. 그동안 본당을 이끌어온 사제로는 초대 문정현(바르톨로메오) 신부를 비롯하여 현재 제5대 김치삼(스테파노) 신부와 장상호(시몬) 보좌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느 본당 못지 않게 성모 신심이 돈독한 본당 공동체, 오늘도 파티마 성모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과 나누고자 목주알을 굴리는 소리가 성당 주위에 가득하다.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 5. 생명과 교회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존엄한 생명권을 갖는다. 부모로부터 비롯되지만 수태의 순간부터 한 인간인 것이다. 그 존엄한 생명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다. 쉽고 편안히 살고 싶다는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는 인간 윤리 규범의 파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사회에는 인명 경시 풍조와 반생명적인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1년에 150만 명 정도의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꺾이고, 사람만 살자고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우리의 현실은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 30, 19). 가톨릭교회는 낙태 허용을 일반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대해 1백만 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통해 폐지를 요구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이다. 교황청이 대전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날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 세계에 올바른 목적, 즉 진보를 꾀하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과학은 생명학이어야 한다. 교황청과 교회는 생명을 선택한다.

**구(九) 죽염**

- 판매처 모집
- 구입하실 분 연락주시시오.
- 신경성 위장병, 당뇨, 무좀(습진) 만성 피로 등.

☎ (0658) 547-9970  
44-4760  
호출기 012-688-0993

**동성 연약(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 · 한국 적연와  
테라코타 · 성광 요업  
각종 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 명 자(테레사)  
시청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부라더 홈패션 교육실**

제2기 무료 수강생 신청순 모집  
-8월30일 개강  
군산 거주자 홈패션 강사 구함

진주 86-2715 김형문(안드레아)  
군산 62-6954 권영자(테레사)  
이리 51-2971 조남석

축! 이전  
**김석주 내과 의원**

김석주(토 마 스)  
서정애(에메렌시아)  
육지구 축협도지회 맞은편

☎ 251-2686

# 교구소식

❖ **교구청 감사**

- 때 : 9월9일-10일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축! 견진**

- 때 : 9월12일(일) 오전10시30분
- 곳 : 영등동 성당

❖ **천호 피정 안내**

- 때 : 9월11일-12일
- 주제 : 여덟가지 행복
- 감사 : 장인산 신부

- 때 : 9월16일(목)
- 주제 : 말씀과 성찬
- 감사 : 김병엽 신부
- 문의 : 73-6600

❖ **예비 신학생 성지순례**

- 때 : 9월12일(일) 오전9시
- 곳 : 교구청에서 출발

❖ **하나회 맹인 선교부 모임**

- 때 : 9월12일(일) 오후2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복협의회**

- 창립대회 및 잔치마당
- 때 : 9월12일(일) 오후2시
- 곳 : 윤호관(구 해성학교)

❖ **평협 회원 연수회**

- 때 : 9월12일(일) 오전9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대상 : 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부장 각 1명

❖ **사회복지회 자원봉사자 피정**

- 때 : 9월13일(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곳 : 천호 피정의 집
- 감사 : 김동준 신부
- 준비 : 필기·미사도구
- 회비 : 2,000원
- 출발 : 9월13일 오전9시30분 시청 민원실 앞
- 문의 : 84-5290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9월20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성 김대건 신부
- 내용 : 한국 최초로 서양 학문을 배웠던 유학생, 한국 최초의 사제, 한국 사제로서는 처음으로 성인이 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불꽃 같은 짧은 생애가 담겨진 영화.
- 회비 : 1,000원

❖ **성소모임**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9월12일 오후2시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9월12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42-4132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9월12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노순자 / 4,300원

동정부부 순교자 유포한과 이루갈다의 순교 소설, "...저는 하느님께 유혹을 이겨낼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의 아낌과 믿음은 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진정한 순례

인간사에는 불행히도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순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순례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 장(場)이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며, 더욱 중대한 사실은 순례가 실속없고 맹목적인 형식주의에 빠진다

는 것이다.

순례란 하느님을 찾는 것. 이 찾음은 외적인 행사만일 수 없다. 이를 통해서 내적인 찾음과 전인적 찾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하느님을 찾음은 동시에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마치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는 강물처럼 '정의'와 '서로 위하는 마음'의 구현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순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전주교구사 연표

이 연표는 전주교구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작성한 것이다. 사료의 객관성과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거를 밝혔다.  
김진소 엮음/호남교회사연구회  
가격 10,000원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 늘 푸른 집<대리점>

- 샘이랑 : 은뭍,삼푸,린스 겸용
  - 천연샘 : 부엌용(아기샘,맑은샘)
-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예로니모)  
허 정 자(수 산 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 옆  
☎ 252-1783  
253-6355~6

### 축! 이전 조주장 한의원

조 주 장(이나시오)  
차 숙(글라라)  
중앙 성당 ↔ 육교 BYC 2층

###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 커피장식·혼수이불·홈션 천 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 대 원(프란치스코)  
박 해 순(헬레나)  
순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9월은 순교자 성월 :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읍시다.!
- ◎ 오늘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 1. 반회장 임명 : 기린봉 아파트 1반-윤정심(아네스) 기린봉 아파트 3반-김용숙(소피아) 수고하시겠습니다.
- 2. 금주 모임 : ① 성심회, 자모회(7일 어머니미사 후) ② 꾸리아(12일 천사의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모후-후 2시) ③ 장우회(12일 장엄미사 후)  
차주 모임 : ① 부녀회(14일) ② 형제회(18일) ③ 대건회(10일)
- 3. 금주 청소 : 중노 23, 24반, 차주 청소 : 중노 25, 26반.  
□ 지난주 봉헌금 : 1,057,690원 □ 교무금 : 1,223,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1. 9월은 순교자 성월
- 2.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미사 후 수녀님반, 목요일 저녁미사 후 신부님반
- 3. 회합 : ① 대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 구역분과회-7일 오전 10시 ④ 울뜨레아-7일 저녁미사 후 ⑤ 안나회-9일 오전 10시 ⑥ 여성분과회-11일 오전 10시 ⑦ 요셉회-12일 공식미사 후 ⑧ 꾸리아-12일 오후 2시 ⑨ 청년회-12일 저녁미사 후  
금주 전례 : 해설-유복규, 독서-유달수 씨 부부  
봉헌-강희술 씨 가족  
차주 전례 : 해설-황만규, 독서-임병련 씨 부부  
봉헌-채용석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59,440원 □ 교무금 : 1,173,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 1.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2. 모임 : ① 요셉회,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 안나회-다음주일
- 3. 감사 : 채대꽃 봉헌-구세주의 모친(3만원)
- 4. 남전주지구 어린이 체육대회 : 19일(일) 성심여고
- 5. 미사시간 변경 : (월) 오전 6시 (화-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7시
- 6. 성지순례 : 20일(월) 연풍성지(수안보 온천)
- 7. 차주 전례 : 해설-이옥봉, 독서①한동옥 ②송경자  
봉헌-유순철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19,300원 □ 교무금 : 30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연중 제23주일! (9월은 순교자 성월!)
- ◎ 주일금은 1주일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정성껏 봉헌합시다(주일금 배가운동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 1. 꾸리아 : 7월5일(오늘) 오후 2시
- 2. 울뜨레아 : 9월8일(수) 오후 8시(권원 참석, 시간 엄수바람)
- 3. 프란치스코3회 : 9월12일(다음주일) 오후 2시
- 4. 성심회 : 9월14일(화) 오전 10시30분(성심회원 전원 참석바람)
- 5. 영세자 집중교리 : 9월14일(화)~9월17일(금) 매일 저녁미사 후
- 6. 영세식 : 9월18일(토) 저녁미사(영세자 및 대부분은 1시간 전에 모임)  
□ 지난주 봉헌금 : 1,081,150원 □ 교무금 : 52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목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연중 제23주일
- 1.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젊은이 모임
- 2. 구역, 반 미사 : 9월 8일(수) 1구역 4반 8시.
- 3. 봉성체 : 9월 11일(토) 오전
- 4. 미사시간 변경 : 일요일 9시(학생미사)→(토)오후 6시(특전미사)
- 5. 본당의 날 행사 : 체육대회(9월19일)
- 6. 청소 봉사 : 3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 775,000원 □ 교무금 : 1,288,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 금주 : ① 레지오 마리에 성지순례(미리내) ② 미사시간 변경(금일만)-오전 5시30분, 10 : 30(공식미사) 오후 3시, 7시.
- 2. 돈·보스코회 : 8일(수) 오후 7시30분
- 3. 명화 상영 : 8일(수) 저녁미사 후 "오늘의 순교자들"
- 4. 유아세례 : 11일(토)오후 3시-10일까지 신청
- 5. 정원들, 야외용 엠프시절 봉헌 : 성심유치원 원아 일동
- 6. 매주 공식미사중에 어린이아 들보아 줌 : 장소-사랑방, 주취-빈첸시오회
- 7. 차주 : ① 자모회(전 10시) ②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 재속규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 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⑤ 사목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 1,911,6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1. 오늘은 점심자 성지순례 : 공식미사 없고 후 7시30분 미사.
- 2. "본당은 우리" : 12일 전 9시30분~후 4시. 회비 3,000원 교리실. 남녀노소 건전 대상자 환영합니다. M.E 소개도 있음.
- 3. 견진 대상자 접수 : 12일 주간까지 교리서 구입
- 4. 사목회 삼일위원회 : 9일 저녁 8시 사제관 본당의 날 준비
- 5. 구역 반회장 연수회 : 7일 전 10시30분 견진자 파악
- 6. 초등부 그림그리기(1~3년), 포스터(4~6년) : 11일.
- 7. 인자하신 어머니Pr 200차 기념 : 7일 7시30분 사제관
- 8. 가정방문 일정 : 7일 18-1반(중전) 전 9시, 18-2반 후 2시30분, 9일 18-3반 전 9시, 10일 16-1반(우성) 전 9시.
- 9. 회의 : 자모회-8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10일 후 3시,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412,920원 □ 교무금 : 1,65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 새로 부임하신 이성우(미티아)신부님 축하합니다.
- 1. 성모회, 사목회 : 오늘 미사 후.
- 2. 구역장 월례회 : 7일(화) 오후 8시30분.
- 3. 대건회 : 9일(목) 오후 8시30분.
- 4. 자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 5. 오늘은 성소후원금 납부주일입니다.  
금주 전례 : 최준순, 손금규, 독서·봉헌-송봉자, 오한철  
차주 전례 : 정준성, 김경숙, 독서·봉헌-이길화, 박재영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 오늘은 연중 제 23주일입니다.
- 1. 안나회 : 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 2. 한자 봉성체 : 9월7일(화) 오후 2시.
- 3. 구역봉사자 모임 : 9월8일(수) 7시까지(대전엑스포)
- 4. 구역성서만 모임 : 매주 수, 목 오후 8시.  
미사 안내 : 금주-동정녀, 다위탑  
차주-매괴의 모후, 즐거움  
□ 지난주 봉헌금 : 1,287,520원 □ 교무금 : 2,316,5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1. 모임안내 : ① 꾸리아-가우회 공식미사 후 ② 구역분과-9일(목) 10시미사 후 ③ 자모, 성모, 성심회-10일(금) 10시미사 후.
- 2. 성지순례 : 다음주일 오전 7시 출발. 장소 : 갈매꽃. 3. 예비자 1인씩 인도합니다. 임교석-10월5일(화) 4. 봉성체 : 9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가정방문 : 14일(화) 오후 2시 효자성원. 15일(수) 동원. 16일(목) 원전. 17일(금) 한산1,2반.  
차주 모임 : 빈첸시오회, 제대회, 가정방문  
신속헌금 봉헌회-770,000원  
금주 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권호상 ②허선영  
봉헌 안내 : 양형섭 부부, 이태영 부부  
차주 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조세열 ②이정금  
□ 지난주 봉헌금 : 1,465,520원 □ 교무금 : 2,108,000원